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9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5월 17일)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순직 군승 원력 잊지 않을 것 현충일을 앞두고 6월 4일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선일)가 국립현충원을 찾아 순직 군승들의 호국정신을 기렸다. 이날 현충원 순직군승 묘역 참배에는 교구장 선일 스님을 비롯해 10여 명의 군승법사들이 참석했다. 선일 스님은 "군포교를 이어온 이분들이 있어 한국불교가 있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현역군승법사 88.3% "이대론 군포교 붕괴"

[기획] 군승 파송 절벽이 다가온다

① 군승에게 듣다, 파송 절벽 원인과 해법은?

② 맥 끊긴 군종사관후보생, 활성화는?
③ 군승요원 수급, 출가자 감소 파고 넘나?
④ 20년 화두 타종단 진출, 해법될까?
⑤ 군승 파송 제도 개선, 무엇이 필요한가?

현역군승 103명 설문조사
군포교 질적 저하 45.6%
TO감소 양적 저하 42.7%
군포교 현장서 우려 높아

출가자 감소 주원인 꼽고
대안으로 '군승 출가' 개편
해법 난해한 총체적 문제
독신 예외 등 파격제안도

노덕현 · 임은호 기자

올해 사상 처음으로 군승 파송 미달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본지 설문조사 결과 현역 군승법사 88.3%가 군포교 붕괴까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송 예비자원까지 말라 군승 파송 절벽까지 예상돼 종단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본지가 5월 1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역 군승법사(132명, 응답 103명)를 대상으로 진행한 군승 파송 관련 설문조사 결과 현역 군승법사들은 이번 파송 미달 등으로 △우수자원 선발부족으로 인한 군포교 질적저하(47명, 45.6%) △장기적인 불교 TO감소로 인한 군포교 양적저하(44명, 42.7%) 등 군포교 타격을 우려했다.

군승법사(불교군종장교)는 400여 군법당에서 군포교를 이끄는 핵심자원이다. 군승법사 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ROTC와 같이 인가를 받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 WISE캠퍼스, 중앙승가대 등 3개 종립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군종사관후보생과 4년제 대학 졸업 및 동등학력을 취득한 35세 이하 사미 · 사미니 승적 이상 스님이 지원하는 군승요원이 그 것이다.

올해 조계종은 국방부가 요청한 군승법사 파송인원 18명 중 7명을 파송했다. 개신교의 경우 200여명이 지원하여 10:1의 경쟁률로 군목 18명을, 가톨릭은 4:1의 경쟁률로 군신부 14명을 파송한 것과 대조된다. 군승 파송 미달은 군종사관후보생 지원이 최근 몇 년간 사실상 전무한 가운데, 군승요원 모집 또한 출가자 감소로 급감한데 따른 것으로 교계 안팎에서 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현역 군승법사들은 군승 파송 미달의 주원인으로 △출가자 감소 및 군승요원 지원 감소(79명, 76.7%)와 함께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감소(16명, 15.5%)를 두 번째 원인으로 꼽았다. 중복응답 집계에서는 군승요원 지원 감소를 응답자의 78.6%가 원인으로, 군종사관후보생 지원 감소를 응답자의 35.9%가 원인으로 각각 꼽았다. 작금의 사태 원인이 군승요원 지원 감소에 있다는 지적이다.

군승 수급 대안으로는 출가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편과 함께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를 꼽는 이들이 많았다. 군승요원 감소 문제가 '출가자 감소'라는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군승요원 지원 자격 중 하나인 사미 · 사미니계 승적 이상인 스님을 판단하는 사미 · 사미니계 수계자를 보면 2009년에는 280여 명이었지만, 2019년에는 절반인 140여 명에 불과하다. 2022년 봄 수계에서는 단 35명이 계를 받았다.

현역 군승법사들은 "출가자 감소와 더불어 고령화로 인하여 군승요원 조건을 충족하는 해당 스님들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부분을 인식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연초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또한 교구본사 등에 군승요원 의무할당제 등을 제안했지만 무산됐다.

설문에 참여한 한 젊은 군승법사는 "어떤 사찰의 경우에는 행자 때부터 종무소에서 소임을 보게하는 등 승단에서도 출가자 감소의 영향이 있기에 군승지원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군승 파송 인원 확충을 위한 대안을 묻는 설문에서는 △군종사관후보생 연계 출가자 모집 등 제도 개편(34명, 33%) △군종사관후보생 제도 활성화(28명, 27.2%) △교구본사 파송 할당제 등 군승요원 지원 제도화(26명, 25.2%)를 꼽았다. 특히 군종사관후보생에 대한 독신 강제 철폐나 금강대 · 위덕대 등 타종단 불교대학에 대한 군종사관후보생 선발 확대 등 파격적인 시도도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일부에서 제기해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군승법사들은 군포교 최일선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며 "특히 파송 문제는 국가와의 약속이기도 하다. 종단과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설문 분석 기획 3면〉

도난 불교문화재 은닉 사립박물관장 법정구속

집행 유예 없이 징역 1년형
서울중앙지법 6월 3일 선고
은닉 성보문화재 몰수 판결
1심서 첫 몰수 선고 의미 커

오랜 기간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前사립박물관장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가 은닉해온 불교문화재들은 모두 몰수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6월 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前사립박물관장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온 A씨의 수법, 수량들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물관을 운영했던 A씨는 미필적으로 도난문화재임을 인식했음에도 구체적 취득 경위를 확인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매했다. 거래 과정에서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장부 작성 등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며 "A씨가 문화재를 보관한 장소는 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들도 모르는 곳으로 특정인을 제외하면 존재도 몰랐다. 이는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은닉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안시설과 항온항습시설들이 전무한 곳에 문화재를 방치하듯 보관한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한 재판부는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993년부터 서울 종로에서 사립박물관을 운영한 A씨는 종로구 소재 무허가 주택과 창고에 다량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은닉해왔고, 이미 수차례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과 몰수 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번에도 A씨는 2020년 1월 한 옥션에 포항 보경사 영산회상도, 지장보살도를 출품해 덜미를 잡혔다.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임을 인지한 조계종과 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즉각 옥션을 방문해 도난 사실을 공포했고 성보문화재 임의제출을 촉구했다. 이후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이어진 수사를 통해 총 16건 32점의 도난 불교문화재를 확보했다. 피해사찰은 구례 화엄사, 천은사, 순천 선암사, 강진 백련사, 해남 미황사 등 14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문화재 불법 취득 및 은닉 혐의'로 검찰에 기소 · 송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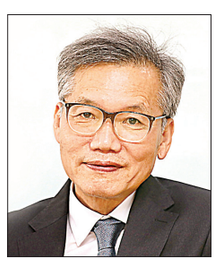
이번 판결은 특히 도난 문화재 은닉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및 몰수조치를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문화재 은닉이 중대한 범죄임을 보여줬다.

이번 판결로 조계종과 피해사찰들은 한시름을 덜었다. 실형도 실형이지만 몰수 명령 선고가 1심에 났기 때문이다. 피해사찰 중 한 곳인 구례 화엄사 주지 덕문 스님은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재판이 마무리돼 도난됐던 성보인 화엄사 시왕도가 어서 빨리 환지본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향후 조계종은 A씨의 항소 여부를 살피고, 항소 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A씨의 항소가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기민하게 대응하려 한다"면서 "14개 피해사찰을 중심으로 '피해사찰협의회'를 구성하려 한다. 재판 최종 판결까지 관련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구태서 本紙 신임 사장 취임



구태서 본지 신임 사장〈사진〉이 6월 7일 취임했다. 구태서 사장은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84년 진주MBC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했다. 1990년 BBS불교방송 보도국에 입사해 보도팀장, 기획관리실장, 총무국장, 부산총괄국장을 역임했다.

구태서 사장은 "사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책임감이 막중하다"며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이어 "광고 수익 확대과 다양한 기획사업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겠다"며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의 사시를 구현해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으뜸 불교 언론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삼성동 73번지)